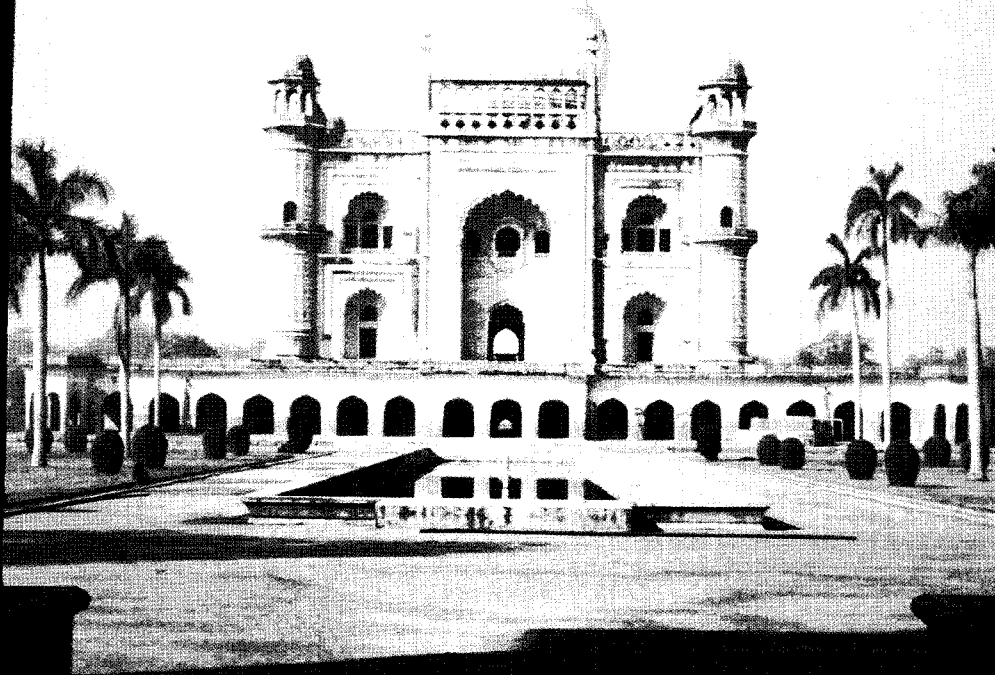


인도  
힌두교 불의 신,  
아그니

글  
조승연  
국립민속박물관,  
인류학 박사

# 인도 힌두교 불의 신, 아그니



## 1. 불의 숭배

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커다란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은 인류 역사에서 불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숭배의 대상물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도 고대의 베다 경전에 의하면 인도인들은 아그니(Agni, 산스크리트어로 '불'이라는 뜻), 즉 불을 인간과 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자로 생각했다. 오늘날도 인도 브라만의 가정에서는 아그니를 숭배하기 위해서 성화(聖火)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의 로마인이 영원한 성화를 4명의 베스타(Vesta) 처녀에게 지키게 했던 것과 그리스인들이 이주할 때 헤스티아(Hestia, 그리스 신화의 화로의 여신) 여신의 성화를 소중하게 운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불을 중

교의 중심으로 삼아서 불을 가장 신비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것으로 숭배했는데, 이들은 불을 신이 하늘에서부터 직접 인간세계에 나타나서 스스로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 2. 불의 힘과 인간들의 숭배

밤하늘의 별빛과 비, 쏟아지는 하늘의 번갯불, 한여름의 이글거리는 태양, 이 모든 것들은 지상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이 불의 발견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불, 그것은 고대 인도인들의 가슴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의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불이 강력한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비단 인도인뿐만은 아니다.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는 '모든 사물은 유전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는 만물의 근원을 '불'로 보았다. 더불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기본 물질 가운데 불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은 인류의 진정한 힘이자 빛이었던 것이다.

불을 신성시하고 의례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풍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여러 지역과 민족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그것은 불이 신비하고 영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와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의 기원에 대한 신화나 전설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불을 흠쳐서 인류에게 주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 또는 동물의 시조(始祖)로부터 인류가 얻어냈거나 발화법(發火法)을 배웠다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고대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신화이고, 이러한 종류의 신화는 북아메리카 인디언·폴리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 등지의 종족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예는 중국·에스키모·스리랑카·아프리카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도곤족은 불은 태양의 한 조각이었는데 대장장이가 천신(天神)에게서 훔쳐내었다고 하여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같은 종류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불의 기원에 관한 신화들은 불 자체를 인간 이외의 존재에서 구하고 있고, 또한 그 존재나 불을 훔치거나 얻어내고 있는 것도 모두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특

색을 갖고 있다. 불을 숭배의 대상이나 신으로 받드는 사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전형적이고 유명한 것은 힌두교의 아그니 숭배와 조로아스터교의 아타르 숭배이다. 두 종교 모두 불에 상징적인 의미를 붙여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이나 불길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 3. 불의 신, 아그니

인도의 브라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제사이며, 이들이 관장하는 제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 모든 제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신이 바로 아그니, 불의 신이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은 아그니에게 바쳐졌으며, 아그니를 통해 의식을 정화했다. 그래서 아그니는 신들의 입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으며, 신과 인간의 사절, 인간들의 벗, 재물을 주는 신, 영웅 같은 자손을 주는 신,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같은 신, 제사장,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신, 천지를 돌아다니는 신, 천지에 거처를 두는 신, 귀신을 쫓는 신, 가정을 수호하는 신, 가장 젊은 신, 정화해주는 신,



힘의 아들 등 수없이 많은 호칭으로 불려졌다. 신들에게 인간들의 뜻을 전해주고 인간들에게는 신들의 복을 날라다 줌으로써 달콤한 혀를 가진 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아그니는 모든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인도의 고대 성전 <리그베다>의 1/5은 아그니에 대한 찬가이고, 인드라 다음으로 중요한 신이었다. 불의 신이 화천(火天) 아그니로 불리며, 우리말의 아궁이도 이 아그니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얘기다. 어쨌든 불의 신 아그니를 의역한 것이 화천, 화선(火仙), 화신(火神)이다. 아사니(阿奢尼), 아아나(阿阿那)는 그것을 음역한 것이다.

화천 아그니는 지계(地界)에서 첫째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천계(天界)에서는 태양이 되고 공계(空界)에서는 번개 불로 되는 우주의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밝게 비추는 모든 사물들의 주인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는 이 신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하여 바람의 신 바유(Vayu)와 술의 신 소마(Soma)와 더불어 삼신(三神)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불은 바람을 동반하면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때문에 바람의 신 바유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아그니의 턱과 이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불꽃 형상을 하고 있으며, 3개 또는 7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



[그림1] 불의 신, 아그니 조각

4. 인간이 바친 제물을 신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아그니 신은 세상을 밝게 빛나는 힘을 가졌고, 모든 존재 속에 숨어 있기에 모든 사물을 안다고 한다. 또한 그 불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 이내 연기로 화하여 하늘 높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상의 소망을 하늘의 신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더구나 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중요시되었던 고대 인도인들에게 아그니 신은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신과 조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가 인간이 바친 공양물을 천상에 전달하면 신들은 그것에 의하여 힘을 얻어 악마의 무리를 쳐부술 뿐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부여한다.



[그림2] 불의 신 아그니를 모시는 마가다국의 우루빌바 카사파(Uruvilva kasyapa) 사원

불의 신 아그니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인 하늘의 드야우스와 어머니인 땅의 프리티비 사이에서 태어난 신으로, 또는 브라흐마 신의 아들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카사파와 아디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의 하나로 다양하게 여겨진다. 또한 후기 문헌에서는 인간들의 조상의 왕 앙기라스의 아들로 묘사되기도 한다.

불의 신 아그니에게는 세 명의 형들이 있었다. 그들은 희생제의에서 인간들이 바친 공물을 신들에게 운반하는 도중에 모두 죽었다. 이를 본 아그니는 자신도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그는 우선 불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사라지자 악마들이 나타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신들은 악마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모두 처치하고 난 다음 아그니를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왜냐하면 신들은 그가 없어지면서 공양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들과 아그니 사이에 쫓고 쫓기는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신들은 아그니가 사미(Sami, 서로 비벼서 불을 일으키는 나무 막대기의 원료) 나무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신들은 그 나무를 모든 제사에 쓰이는 신성한 불이 거주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아그니는 사미 나무속에 머물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불을 피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 신들은 아그니에게 찾아내어 그에게 신들의 공물을 운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그니는 자신의 생명을 늘여 줄 것, 신들처럼 공양물을 들 수 있을 것, 자신의 희생제를 올려 줄 것 등을 신들에게 부탁했다. 신들은 아그니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아그니여, 앞으로 소마 희생제는 전적으로 너를 위해 실행하게 될 것이다.” 신들은 음식을 차려 아그니를 초청하고, 야마에게는 왕권을 주었다. 이리하여 아그니는 신들의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고, 야마는 죽은 조상들의 왕이 되었다. 아그니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와서 다시 신들을 위해 공물을 운반하게 되었다. 제사의식은 다시 거행되었으며 모든 인간들과 신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림3] 불의 신, 아그니 세밀화

5. 불은 바로 정화력과 생식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도 힌두교의 불의 신 아그니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희생제의에 바쳐진 재물을 신들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 중에서도 아그니는 주로 제사의식에서 사용되는 불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원시

신앙과 유사하게 고대 인도인들도 물, 특히 비는 신들이 인간세계에 주는 선물의 상징으로, 반면에 불은 인간이 신들에게 받치는 공물의 의미로 주로 사용했다. 이는 아마도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반면에 불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자연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대부분의 오늘날 종교의식에서 불 혹은 연기를 피우는 것도 위의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류 역사에서 불에 대한 숭배가 갖는 기능적 측면은 생산력과 정화력을 들 수 있다. 불을 남성 이 갖는 생식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예는 베다나 브라만에도 있으며, 생명의 연장이나 한 가문의 번영을 불의 지속으로서 상징화시키려고 하는 ‘영원의 불’이나 ‘생명의 불’의 관념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이 모든 죄와 부정을 불태워 없앤다고 하는 정화력의 관념도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와 의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의 숭배 관념은 태양의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태양숭배가 성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와 똑같이 불의 숭배도 행해지고 있다. ㉞